

LG전자, ‘QNED’ TV 시대 연다

〈나노 기반 고색 재현 디스플레이〉

내달 한국·북미 시장 신제품 출시
5대 AI 기능 등 첨단기술 대거 적용
“프리미엄 TV 리더십 공고히 할 것”

LG전자가 내달 초 한국과 북미를 시작으로 2025년형 나노 기반 고색 재현 디스플레이(QNED) TV 신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43·50·55형 등 중소형부터 65·75·86·100형 등 초대형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라인업을 출시했다.

LG전자는 신제품에 새롭게 개선된 나노입자 기반 고색 재현 기술을 적용해 화면 속 영상을 실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색 재현율을 높였다.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인터텍으로부터 원본 영상의 풍부한 색을 왜곡 없이 표현하는지를 측정하는 컬러볼륨 100% 인증을 받았다.

또 2023년 세계 최초로 선보인 ‘무선 AV 전송 솔루션’도 QNED 에보에 확대 적용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대 4K·144헤르츠(Hz) 영상을 손실·지연 없이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화면 끊김을 최소화하는 AMD의 ‘프리스링크 프리미엄’ 인증을 획득했다.

기존 TV 본체에 연결했던 콘솔기기, 셋톱박스 등 주변 기기를 별도 ‘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있는 가전 매장 ‘미디어 마켓’ 직원이 고객에게 LG QNED TV의 AI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G전자

로 커넥트 박스’에 연결하면 무선 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매직 리모컨에는 5대 공감지능(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전용 버튼을 탑재했다. 5대 AI 기능은 ▲사용 패턴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키워드를 제안하는 AI 컨시어지 ▲거대언어모델(LLM)로 기반 고객의 발화를 이해하고 의도를 추론해 검색하는 AI 서치 ▲간단한 문제해결을 돕는 AI 챗봇 ▲AI 맞춤 화면·사운드 모드 ▲목소리로 사용자를 구분해 자동으로 계정을 전환하는 보이스 ID 등이다.

아울러 2025년형 LG QNED 에보에는 독자 AI 화질·음질 엔진인 알파8프

로세서를 탑재했다. 기존 대비 약 70% 뛰어난 AI 성능을 토대로 초대형 TV에 맞는 화질·음질을 구현한다.

100형 QNED 에보 국내 출하가는 890만원, 무선 QNED 에보 출하가는 86형 제품이 639만원, 75형 제품이 499만원이다.

박형세 LG전자 MS사업본부장 사장은 “압도적 자발광 화질의 올레드 TV와 진일보한 기술을 대거 적용한 프리미엄 LCD TV인 QNED TV의 듀얼 트랙 전략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정의선 “올해의 車, 임직원 열정·헌신 덕분”

〈현대차그룹 회장〉

정 회장, 격려 메시지 전달

정의선 현대차동차그룹 회장(사진)이 기아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의 ‘세계 올해의 차’ 수상을 축하하며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은 지난 25일 사내 업무방에 올린 글에서 기아의 ‘세계 올해의 차’ 2년 연속 수상과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의 ‘세계 올해의 전기차’ 선정을 축하했다. 임직원의 열정과 헌신을 격려하며 지금의 위대함을 넘어서자고 강조했다. EV3는 이달 초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열린 ‘2025 월드카 어워즈’에서 최고상인 ‘세계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이 수상으로 기아는 지난해 EV9에 이어 2년 연속 WCOTY를 받았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지난 6년간 5차례에 걸쳐 ‘세계 올해의 차’에 이름을 올렸고, 전기차로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러한 값진 결실은 상품 기획부터 개발, 디자인, 구매, 생산, 품질, 영업 등 완성차 전 부문과 철강, 물류, 금융 등 전 그룹사가 상호 긴밀히 협업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하고자 한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기아는 지난해 EV9에 이어 올해 EV3까지 2년 연속 세계 올해의 차를 수상했고, 이는 단순한 영예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1944년 자전거 부품으로 시작한 이래 삼륜차를 거쳐 세계 최고의 자동차 반열에 오르기까지 쉽지 않은 혁신 역사를 써온 기아의 DNA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아 고유의 ‘도전과 분발’ 헤리티지를 현대적인 혁신으로 계승하고,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했음을 입증한 쾌거”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선도해가고 있다”면서도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레이트 버트 그레이트’(Great but Greater), 지금의 위대함을 넘어 더 벽찬 미래를 함께 만들자. 저는 우리의 혁신과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오션, 크레인 등 생산설비 6000억 투자

부유식 도크, 해상 크레인 도입

한화오션은 생산력 향상을 위해 부유식 도크와 6500톤급 초대형 해상 크레인을 새롭게 도입해 생산량과 건조 효율성을 증대할 예정이다.

한화오션은 세계 최고 수준 부유식 도크와 6500톤급 초대형 해상 크레인을 신규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투자 규모는 약 6000억원 규모로, 생산량과 건조 효율성 증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한화오션은 2027년 3월말까지 부유식 도크(Floating Dock) 1기를 새롭게 선보인다.

신규 부유식 도크는 길이 480m, 폭 97m, 부양 능력 18만톤의 초대형 도크다. 해당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기존 도크와의 역할 분리를 통한 생산 최적화로 선박 생산량 증대가 기대된다. 한화오션은 현재 육상 도크(Dry Dock) 2기, 부유식 도크 3기 등 총 5기의 도크를 운영 중이다.

6500톤급 초대형 해상 크레인도

2027년 11월 말까지 추가될 예정이다.

이 해상 크레인은 대형 블록을 직접 인양 및 탑재할 수 있다. 기존 3600톤급 해상 크레인 2기를 병렬로 운영해야 했던 복잡한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 회사는 건조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번 설비 투자가 외부 임차 설비 의존도를 줄이고, 선박 생산량 및 건조 효율성 증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 능력 확대에 맞춰 신규 고용 창출 및 관련 인프라 투자도 예정돼 있어 거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부유식 도크와 초대형 해상 크레인 추가 도입을 위한 투자는 단순한 생산설비 확장을 넘어 미래 해양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라며 “한화오션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Global Ocean Solution Provider’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조선업계, LNG선 등 대규모 수주 행진

HD현대 지난주에만 2.5조 계약
삼성중 연간 수주목표 27% 달성

HD현대와 삼성중공업이 잇따라 대규모 선박 수주에 성공하며 조선업계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양사는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선종을 중심으로 수주 실적을 확대하며 시장 점유율 확보와 수익성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주에만 총 2조 5354억 원의 규모의 컨테이너선 22척을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울산 HD현대미포에서 16척(2800TEU급 컨테이너선 10척·1800TEU급 컨테이

너선 6척), 전남 영암의 HD현대삼호에서 6척(1만 6000TEU급 컨테이너선 2척·84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을 각각 건조해 2028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HD현대삼호에서 건조하는 8400TEU급 컨테이너선에는 LNG와 디젤을 모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LNG 이중연료 엔진(DF)이 탑재되며 1만 6000TEU급 컨테이너선에도 배기가스 저감장치인 스크러버가 탑재돼 강화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HD현대미포는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총 33척(클락슨리서치 기준)의 ‘피터 컨테이너선’(3,000TEU 미만급) 중 절반에

가까운 16척을 수주,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삼성중공업도 이날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5619억원 규모 컨테이너운반선 2척을 수주받아 계약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올들어 LNG운반선 1척, 셔틀탱커 9척, 에탄 운반선 2척, 유조선 4척, 컨테이너운반선 2척 등 18척, 26억 달러를 수주함으로써 연간 목표 98억 달러의 27%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연간 2기 정도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 계약을 확보해 선박과 해양플랜트의 효율적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이라며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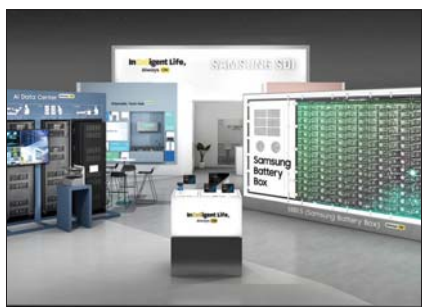
삼성SDI, ‘인터배터리 유럽’ 출격

ESS용 배터리 등 전시 예정

삼성SDI가 유럽 최대 에너지 산업 관련 전시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를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삼성SDI는 오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독일 뮌헨의 ‘메세 뮌헨’에서 개최되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 참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삼성SDI는 ‘언제나 연결된 배터리 기술로 업그레이드되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뜻을 담은 ‘인텔리전트 라이프, 올웨이즈 온’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차세대 배터리 제품과



삼성SDI 인터배터리유럽 2025 부스 조감도. /삼성SDI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특히 AI 시대를 겨냥한 ESS용 배터리 기술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안전성과 편의성이 입증된 제품들을 중점적으로 전시할 예정이다.

삼성SDI는 먼저 UPS(무정전 전원장치)용 배터리 신제품 ‘U8A1’을 전격 공개한다. ‘U8A1’은 초고출력 특성과 높은 에너지밀도를 겸비해 좁은 공간에서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다.

또 삼성SDI의 전력용 ESS 솔루션인 ‘SBB 1.5’도 전시된다. SBB는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박스에 배터리 셀과 모듈, 랙 등을 설치한 제품이다. 특히 합침식 소화 기술인 EDI가 적용돼 고도화된 안전성을 자랑한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서 고객들의 다양한 사용 환경에 최적화된 ESS용 배터리 포트폴리오를 선보일 것”이라며 “삼성SDI의 ESS용 배터리로 언제나 연결된 우리의 일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삼성전자 모델이 터치 인터랙션 기능이 탑재된 프리미엄 가정용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5’를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볼을 터치스크린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이혜민 기자